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10월 10일(목) 행사 시작(11:00) 이후	
배 포 일	2019. 10. 8. / (총 5매)	담당부서	출산정책과
과 장	손 문 금	전 화	044-202-3390
담 당 자	정 우 진		044-202-3395

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, 함께 만들어가요!

- 제14주년 임산부의 날 유공자 포상 및 임산부 배려 행사 개최 (10.10) -
- 임신부 배려 경험 없음 54.1%,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 필요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임산부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배려 인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10월 10일(목) 11시부터 여의도 IFC몰에서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- 올해 행사는 “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”를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, 임산부 배려의 필요성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,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◇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주요 내용 ◇

- 임산부 배려 홍보영상(웹툰) 시청
- 출산친화 유공자 포상(대통령표창1, 국무총리표창3)
- 임산부 배려 토크 버스킹 : MC 이정훈(전(前) MBC 아나운서) 진행
- 축하공연 : 가수 서영은

- 아울러, 기념행사 이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임산부 배려문화 캠페인도 같이 실시한다.

□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임산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기관 및 개인이 대통령표창(1), 국무총리표창(3) 등 총 4점*을 수상하였다.

○ 이중 한길안과병원(이사장 정규형)은 의료계 최초 난임휴가제도 도입, 출산·육아휴직자 복귀지원,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(시차출근제) 및 희망휴직제를 도입하여 회사 내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확산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.

* <붙임 1> 제14회 임산부의 날 유공 수상자 및 공적요지 참고

□ 한편, 인구보건복지협회(회장 신언향)에서 임산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* 결과, 54.1%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, 그 사유로는 “배가 나오지 않아서”라고 응답한 사례가 57.1%로 나타났다.

* 조사기간 : '19.9.26 ~ 10.5 / 조사방법 : 온라인 설문(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, 맘스홀릭)

○ 그간 임산부 배려 상징(엠블럼)을 착용한 임산부에게 전용 좌석을 양보하고, 직장 내 유연근무 확산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(캠페인)도 지속 실시하였으나, 아직은 배려 문화가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.

○ 앞으로 임산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배려로는, 가정에서는 청소, 빨래 등 가사 지원(46.8%)을, 직장에서는 출퇴근시간 조정(31.1%)을,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(37.8%)로 나타나 임산부가 생명을 키워내는 일에 이웃, 동료, 사회, 직장 및 가족이 함께해야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.

- 특히,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 연령*이

늦어지고, 첫째아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지고** 있으며, 조기진통, 분만 전 출혈, 고혈압성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고위험 산모도 증가***하고 있어, 임산부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.

* ('08년) 28.3세 → ('11년) 29.1세 → ('14년) 29.8세 → ('17년) 30.2세

** ('08년) 30.8세 → ('11년) 31.4세 → ('14년) 32.0세 → ('17년) 32.6세

*** ('14년) 2만 3523명 → ('16년) 2만 8065명 → ('18년) 3만 3706명

-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“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·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“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,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< 붙임 > 1. 제14회 임산부의 날 유공 수상자 및 공적요지
2. 임산부의 날 및 배려 엠블럼의 의미

붙임 1 제14회 임산부의 날 유공 수상자 및 공적요지

구분	성명(기관명)	소속·직위	공적요지
① 대통령 표창	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	-	○ '06년 난임휴가제도 도입을 비롯, 출산·육아휴직 후 복귀 100% 지원, 시차출근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
② 국무총리 표창	 조정봉 남, 48세	부산교통공사 기술본부 팀장	○ 전동차 내 임산부배려석 지정 및 엠블럼 부착, 객실 안내방송 시행, 승강장 행선안내기 영상물 표출 등 부산도시철도 이용 임산부의 이동편의 제공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
③ 국무총리 표창	 김광준 남, 58세	중앙대학교병원 교수	○ 고위험 산모, 태아 진단의 최고 권위자로서, 전국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의료의 질 제고에 기여
④ 국무총리 표창	 김숙자 여, 68세	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원장	○ '00년부터 한국 최초 텐덤 질량분석기로 광범위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 및 선천성 대사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함

붙임 2 임신부의 날 및 배려 엠블럼의 의미

□ 임신부의 날(10.10.) 제정 의미

-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며,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부를 배려,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

※ 근거: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(임산부의 날, '05.12.7. 신설)

□ 임신부배려 캠페인 배경 및 목적

- 초기 임신부들은 유산의 위험, 입덧과 구토, 과도한 피로감 등 신체적·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의견상 표시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,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**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**
- 국민들이 임신부배려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, 임신부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소 안내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·보급하여 초기 임신부를 포함한 모든 임신부들이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**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**

□ 임신부배려 엠블럼 소개



-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신부의 모습을 표현
- ‘임산부 먼저’라는 문자와 임신부 배려를 뜻하는 ‘배려의 손과 원’을 결합하여, 강한 주목성을 나타냄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강조
- 아이와 엄마의 사랑,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분홍을 주조색으로 사용